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 과연 성경적인가? (1)

- 읽을 말씀 롬1:17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한 회개장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절대다수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오직 믿음' 이 과연 성경적이며, 바른 번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도 오래도록 '오직 믿음'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했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의' 에 대해 말했으며 그것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의' 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기 의” 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오직 믿음” 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 으로 기록된 다른 성경 구절(롬 3:27-28, 4:13, 갈 2:16, 빌 3:9)들도 모두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를 상대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서 회개를 배제시키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일이 없으며, 믿음에 따른 행함이나 거듭남의 열매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회개나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나 거듭남의 열매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며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마서 2장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오직 믿음은 오직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라는 표현도 온전히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막 1:15)와 사도행전(행 20:21), 히브리서(히 6:1)와 베드로 후서(베후 3:8-9)뿐 아니라, 심지어 로마서(롬 2:1-29)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임을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구호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 아니라 임금이십니다(행 5:30-31). 이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옳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보혈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뜻대로 살기위해 자기 뜻대로 살던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합니다. 또 임금이 먼저고 구주가 그 뒤에 나옵니다(행 5:31). 그러므로 정확히 회개와 믿음입니다. 게다가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되는 것이고 서로 불가분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을 분리시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도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들이는 것뿐 아니라 구주로 모셔들이는 것에도 회개가 필히 요구됩니다. 결코 믿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와 믿음은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것이고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입니다!(막 1:15, 행 20:21, 히 6:1)

나아가서, "오직 믿음"은 못 영혼들에게 너무도 치명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 회개를 강조한 것에 따르면, 회개하지 않은 자는 심판 날 진노를 피할 수 없고(5절), 영생을 얻을 수 없고(7절), 멸망하게 되고(12절),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참 신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28-29절).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오직 믿음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독교의 교리는 본래 '회개와 믿음'이지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막 1:15, 행 20:21, 히 6:1). 그런데 오직 믿음이 오래도록 교계를 지배해온 관계로 "성경에 '오직 믿음'이 여러 번 나오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로마서 1:17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은 하박국서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인용한 것인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없습니다. 또한, "오직"으로 번역된 "데"라는 단어는 "그러나, 그리고, 지금, 게다가, 더구나, 오히려" 등을 뜻하는 것으로, "오직"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명백한 오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성경도 이 구절을 '오직 믿음으로'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도 '오직 믿음으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어 성경만 오역을 했습니다.

2) 로마서 3:27, 3) 로마서 4:13, 4) 빌립보서 3:9

이 구절들에 나오는 "오직"은 "알라"라는 단어로, "그러나, 또한,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오직'이 아니라 '이와는 달리', '대신에'로 번역해야 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도 오직으로 번역했으므로 명백한 오역입니다.

5) 갈라디아서 2:16

이 구절에서 사용된 "오직"이라는 단어는 "예안 메"입니다. "만일 ~이 아니면 (if not)"이라는 뜻으로 역시 "오직"으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번역된 곳 모두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부 오역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이 기독교의 기본교리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까지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헬라어직역 신약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오역한 성구들 중 한 곳도 "오직"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에 그런 뜻의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사 29:13, 마 15:7, 막 7:7)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이없게도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런 명백한 오역을 바로 잡지는 않고, 단어의 뜻은 그렇지 않지만 문맥에 의하면 이런 번역이 적합한 것이라고 옹호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프레임에 의한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 회개를 강조했다는 것을 캐치하지 못한 결과로 내린 결론입니다. 즉 문맥을 운운하나, 2장까지의 더 큰 문맥을 보지 못해서 그런 엉터리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라는 오역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바울도 오직 믿음이 아닌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막

1:15, 행 20:21, 히 6:1-2). 특히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보" 즉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초대 교회 때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 그리고 근거도 없이, 이것이 바울 이후 '오직 믿음'으로 바뀐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바꾸려고 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행 26:19-20). 더구나 예수님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47-48)"**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오직 믿음이 아닌가? 의문을 품게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 네 마음에 믿으면(롬 10:9-10)"** 을 다루고자 합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를 믿으라!" 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혹은 "주로 시인하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임금(주)이십니다.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에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이것은 장로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청교도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 한명인 토마스 왓슨의 「회개」 라는 책에 "이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라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받아들여, 회개하고 믿는 참 신자가 되십시오.

● 나눔과 적용

회개와 믿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확립되어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을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며 진정한 자기부인을 행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누리게 된 풍성한 유익들을 나누어 봅시다.